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서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 慶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안 강 태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 ~ 3 · FAX: 245-7550  
 인쇄처: (주)중앙인쇄  
 Tel: (051)636-9477 · FAX: 636-9478

## 본부 자문위원 3명 · 부회장 8명 새로 선임 '활력 넘치는 집행부' 큰 기대

**회장단 회의 겸 송규정 부산상의 회장 축하연 열어**

본부동창회 제29대 집행부 '안강태호(安康泰號)'가 올해 하반기 본부의 조직 극대화를 양망(揚網)하기 위한 출항에 즈음해 자문위원 3명과 부회장 8명을 새로 선임, 쾌속항진을 예고했다.

안강태 본부 회장(11회 · 대선조선 대표)은 지난 6월 23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일식전문점)에서 회장단 회의 겸 송규정 부회장(16회 · 윈스틸 대표)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축하연을 함께 주재했다.

안 회장은 "활력 넘치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집행부가 되게끔 역량을 결집하자"는 요지의 인사말을 한 후 자문위원으로 선

임된 오완수(직전부회장 · 대한제강 회장) 김병기(남아제관 회장) 현정춘 동문(이상 11회 · 동기회장 · 초당서에연구실 대표) 등 동기생 3명과, 부회장으로 선임된 박병선(14회 · 신흥모직 대표) 손부흥(15회 · 손부흥정형의과의원장) 양성민(16회 · 조광페인트 회장) 노기태(20회 · 국제신문 대표) 이재호(21회 · 동기회장 · 변호사) 김두천(26회 · 서울제분식품 대표) 이진호(34회 · 동광개발 대표) 정성운 동문(39회 · 미광운수 부사장) 등 8명에게 각각 선임장을 전달했다(관련 명단 2면에).

안 회장은 이어 지난 4월 25일

동창회 사상 처음으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한 송규정 본부 부회장을 위한 축하연을 주재했다. 자문위원 및 회장단과 이날 특별히 초청된 추준석(20회 · 부산항만공사 사장) 옥준원(부산고검 검사) 이인수(부산해양수산청장 · 이상 28회) 박성철(29회 · 부산고법 부장판사) 윤인태 동문(30회 ·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은 축하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동창회의 활성화와 용마가족의 유대강화를 촉진하는 건인차 역할이 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앞서 회장단 회의는 '수석부회장 선임' 문제는 더욱 중지를 모은 후 결론을 내리기로 뜻을 모았다.

**얼굴** 김병호(15회)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2선 국회의원인 김병호 동문(15회 · 본부 부회장 · 한나라당 부산진갑 · 사진)은 최근 한나라당 부산시당 신임 위원장에 취임했다.

추진력과 실천력이 강하다는 김 동문은 앞으로 조직 확대 · 재정 기반 확충 · 사기 진작 · 화합-결속 등을 우선 과제로 내 걸었다.

특히 김 동문은 내년엔 치를 부산의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총사령관'을 맡았기 때문에 국회의원 · 구·시의원 · 자치단체 간 원활한 입법-정책-예산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시당 활성화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언제 어디서 만나도 미소를 짓기 때문에 '스마일 킴'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김 동문은 "용마가족들의 자긍심 선양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깨끗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정의과 △국제신문 · 부산일보 사회부 등 차장 △KBS 정치부장 · 보도국장 · TV뉴스주간 · 보도본부장 △LG 상남언론재단 이사 △동아방송대학장 △제16~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홍보위원장 △APEC 특위 한나라당 위원장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부산시 청년연합회 상임고문 △한국환경과학회 고문.

## 제29회A(청년) 대회 3관왕 위업 제14회A(중년) · 22회(장년) 도 왕좌에

**본부 기별대항 바둑대회**

**준우승 제12 · 25A · 28회 차지**

지난 6월 26일 부산 동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서 열린 제5회 본부동창회장기 기별대항 용마바둑대회에서 제14회A(중년부) · 제22회(장년부) · 제29회A(청년부)가 각각 왕중왕에 등극했다. 특히 제29회A는 이날 청년부에서 최강자의 영예를 안아 통산 대회 3관왕의 위업을 세웠다.

이날 오전 10시 제11회를 비롯, 모두 22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스위스리그전으로 펼쳐진 대회에서 중년부(제11 · 12 · 13A · 13B · 14A · 14B · 16 · 17회A)는 제14회A팀이 결승국에서 제16회의 추격을 따돌리고 우승, 감격을 누렸다. 제12회는 준우승을, 제13회A와 제17회A는 각각 3위와 장려상을 받았다.

장년부(제17B · 18 · 21 · 22 · 23 · 24 · 25A · 25회B)는 제22회가 결승국에서 제25회A와의 피말리는 접전 끝에 패권을 차지했다. 제25회A는 준우승을, 제24회와 제21회는 각각 3위와 장려상에 랭크됐다.

청년부(제28 · 29A · 29B · 30 · 31 · 32회)는 결승국에서 제29회A가 제28회와의 격돌 끝에 왕좌를 쟁취, 작년의 패배를 설욕했다. 제28회는 준우승을, 제31회와



제5회 본부 동창회장기 기별대항 용마바둑대회(6월 26일 중앙바둑센터) 청년부 결승국에서 제28회 팀(왼쪽)과 제29회A팀이 격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국에서 제29회A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제32회는 각각 3위와 장려상을 받았다(제29회B가 4위였으나 동일 기수인 제29회A가 우승함에 따라 제32회에 양보했음).

한편 이벤트 행사로 응원단 중회마자에 한하여 개인 토너먼트전을 벌여 권오균(21회) 소유남(28회) 동문이 우승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0분 우중

에도 불구하고 200여 기사 · 응원단이 참석한 기념식(사회:임강택 용마바둑회 총무이사 · 22회)에서 이재호(21회) · 김대욱(29회) 본부 부회장과 사무국 김병수 국장 겸 총무부장(22회) · 황유명 부총무(29회), 강수경 용마바둑회장(21회) · 한병조(13회) · 문운용 고문(14회), 임용수 자문

**노영일(11회) 우승**  
 부산시민바둑대회 노년부

노영일(11회) 동문은 지난 6월 18~19일 부산종합운동장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부산시민바둑대회 노년부(65세 이상 남자 32명 출전)에서 왕좌에 등극, 우승컵과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노 동문은 최근 동기회바둑대회 우승과 함께 올해 통산 2관왕의 감격을 누렸다.

위원(13회), 이상용 부회장(29회), 신병식 재경 용마기우회 전 총무(24회 · SBS 바둑해설위원), 권오균 경총회장(21회) 등이 소개됐다. 대회는 오후 6시 시상식에 이어 열린 단합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本格熟成品 味の明太子**  
 味の 명태자

· 전통적 젓갈 문화는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 업선된 명란과 독자적 방법의 양념으로 최고만을 고집합니다.  
 · 웰빙시대에 맞는 새로운 컨셉으로 대경이 앞장서 나갑니다.  
 · 우리는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맛으로 승부합니다.  
 · 실속있고 차별화된 선물로 좋은 제품입니다.

http://www.dkfnb.co.kr  
 경남도 21회 강창수 경남도 54회 강치범 올림



구분	제품명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상태
생산품목 (특허출원중)	1. 味の 명태자 (맛의 명태자)	저식염 냉동명란젓갈의 제조방식	10-2004-0069767	2004. 09. 02	출원중
	2. 明太醬젓갈 (명태위젓갈)	저식염 냉동명란젓갈의 제조방식	10-2004-0069768	2004. 09. 02	출원중
	3. 양념 魚鱈魚젓갈 (오징어젓갈)	저식염 냉동오징어젓갈의 제조방식	10-2004-0069769	2004. 09. 02	출원중
	4. 味の福 (맛의복) 후라이	복 후라이의 제조방식	10-2005-0027004	2005. 03. 31	출원중
	5. 味の福 (맛의복) 가라아게	복 양념후라이의 제조방식	10-2005-0026354	2005. 03. 30	출원중
	6. 味の福 (맛의복) 이피야보시	복 반건물의 제조방식	10-2005-0026351	2005. 03. 30	출원중
입점업체	삼성분당프라자백화점, 신세계 명동점 · 강남점, 스타슈퍼점(도곡동 삼성타워플러스지하), 하이퍼마켓 잠실 갤러리아 갤럭시, 삼성인터넷몰, 대경인터넷몰, 레이크싸이드CC, 곤지암CC, 동래CC, 부산CC, 울산CC, 여성집지(행복이 가득한 집)통신판매				

대경에프엔비(주) 부산 Tel: 051-255-7211 Fax: 051-255-7214 서울 Tel: 02-593-6163, 6017 Fax: 02-593-6018



이인수

제28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며칠 전 한 학생에게 “바다가 무엇이나?” 물었다. 그러자 그는 “아, 바다...”하고 주춤했다. 어쩌보면 참 쉬운 말인 듯 한데 ‘안다’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말은 어쩌면 정답인지도 모르겠다.

바다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백인백색 전혀 다른 모습이다. 낭만으로, 신비롭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미래의 부(富)를 꿈꾸기도 한다. 이렇듯 바다는 직업이나 사는 환경 등에 따라 인식대가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은 ‘미래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이자 모체(母體)이며, 영양소’라는 점이다.

바다는 생물자원의 보고로서 모두 40만 종으로 추산하는데, 이 가운데 4만 종의 생물에는 항암제·당뇨치료제 등 인간에게 유익한 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또 해양에너지 자원은 공해가 없고 고갈되지 않는 천연자원으로 조력과 파력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연구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심해저에는 육지의 수십~수백에 달하는 망간니켈 코발트 구리 등 전략광물이 있고 세계의 석유 생산량의 30%가 바다에서 생산된다.

이렇게 중요한 바다를 1,200년 전 장보고 대사가 동북아 국제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여 찬란한 해상왕국을 이룩하였으나

바다는 콜럼버스의 계란

그 이후 해양강국의 꿈을 접고 역사의 뒤안길에서 해양사를 다루어 대륙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

근세에 와서 강대국에 의해 국토가 분단되어 타의나마 해양사가 우리를 전면에서 부상하게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업 세계 1위, 선박 보유량 세계 7위,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5위, 해양 교역량 6위를 달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0대 해양국가로 성장하였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은 미래의 바다인 ‘태평양을 앞마당으로 하여 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해양국가이고 남한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국토면적의 24%에 달하는 갯벌자원, 세계 주요항로에 위치한 항만, 연 100조 원에 달하는 해양생태계의 잠재적인 가치 등 천혜의 자연적 여건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UN해양법협약의 발효, 리우환경회의의 ‘의제21’의 채택 등 인류 공동의 자산인 해양보전·관리를 위한 규범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미 자국의 미래 해양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개발의 당위성과 중요성은 논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바다를 이해하고 개발하며, 이용·보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누가 먼저 개발·발전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미래의 바다는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의 계란’처럼 먼저 성취하는 자의 몫이 될 것이다.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서양 격언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바다가 우리 미래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깨닫게 된다.

등대회 활성화 ‘수혈운동’ 전개

제31회이하 회원들 각종 과제 실천키로 결의

등대회(부산지역 해운 항만 수산 등 관련업계 동문 모임)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선한 수혈 운동’이 회원 중 제31회이하 열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 적극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오후 7시 부산 사하구 감천동 이화정에서 제31~50회 30여 회원들이 모여 등대회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모든 회원이 집행부 임원의 자세로 헌신, 미참여 회원 발굴, 제31회이상 동기회 선배 초청 간담회, 화합과 결속 강화, 각 동기회별 대표간사 선임, 정기-임시회의 개최와 참석자 극대화, 회원 전원

새로 선임된 본부 자문위원·부회장

구분	성명	회	직책	참고
자문위원 (3명)	오완수	11	대한제강(주) 회장	전 본부 부회장
	김병기	11	남아제관(주) 회장	동기회 고문
	현정춘	11	초당서예연구실 대표	동기회 회장
부회장 (8명)	박병선	14	신흥모직(주) 대표이사	전 본부 부회장
	손부홍	15	손부홍정형의과의원장	전 본부 부회장
	양성민	16	조광페인트(주) 회장	전 본부 부회장
	노기태	20	국제신문사 대표이사	동기회 회장
	이재호	21	이재호법률사무소 변호사	동기회 회장
	김두천	26	서울제분식품(주) 대표이사	경야회 부회장
	이진호	34	동광개발(주) 대표이사	
	정성운	39	미광운수(주) 대표이사	

‘05연회비 6월까지 완납 등 다양한 과제를 실천토록 결의했다. 특히 제31회이상 동기회 선배 초청 간담회는 매월 한 차례(점심시간 이용) 1개 선배기에 회원 전원 참석 원칙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오완수 쌍석회 고문 기금 200만원 쾌척

바둑 우승 노영일·한영규



쌍석회(제11회 바둑 모임) 정례 바둑대회 겸 임시총회가 지난 5월 27일 오후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 바둑센터에서 열렸다.

이 명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동기회를 대표해 현정춘 동기회장 등 5명과 쌍석회의 오완수(사진) 고문·신대수 직전 회장·서근조 동문 등 모두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바둑대회는 오후 1~6시 김원형 총무의 진행으로 열전을 벌여 A조에서 우승 노영일·준우승 박장순, B조에서 우승 한영규·준우승 박용관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대회 후 곧바로 열린 임시총회(단합회식을 겸함)는 먼저 ‘동문간 유대 증진·기력 향상·동기회 활성화 촉진 등을 위해 바둑대회를 홀수월마다 개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회칙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총회는 이 명 회장이 제청한 ‘신대수 직전회장·서근조 동문 고문 추대’안을 승인했다.

특히 오완수 고문(본부 자문위원·대한제강 회장)은 쌍석회와 동기회 발전, 동문들의 건강과 친목 촉진을 위한 건배를 제의하고 즉석에서 쌍석회 발전기금 200만 원을 쾌척, 감사의 뜻이 넘치는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제6회 동문들이 경남 김해시 근교 장유폭포 유원지 옆 초원의 집에서 열린 आय회(5월29일)에서 우정을 나누고 있다.

장유폭포에 활짝 핀 ‘우정의 무지개’

제6회동기회 40여 명 आय회서 만나 회포 풀어

신록의 속삭임 속에서 시원하게 내리꽂히는 폭포수... 회수(喜壽)를 바라보고 있는 우정들이 아름다운 자연의 앙상블에 심취하며 ‘낭만의 무지개’를 꽃피웠다.

지난 5월29일, 경남 김해시 장유읍 근교 장유폭포 유원지에 있는 초원의 집은 제6회동기회의 춘계야유회로 시끌벅적했다.

“이 나이에 잘나고 못나고 어디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정 하나로 뭉치고 건강 지키며 자주 만나세!” 이길상 회장이 주재한 이날

야유회는 40여 명이 참석하여 나이를 잊은 채 재담과 익살을 토해내고 장기와 노래 실력을 뽐내며 우정을 확인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를 나이쯤 되면 못난 사람도 잘난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며 “가진 자의 우쭐 거림이나 가지지 못한 자의 의기소침은 모두 버리고 우정 하나로 결속하자”고 말해 공감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동문들은 소주잔을 나누며 건강을 잘 지키고 자주 만날 것을 다짐했다.

용마부인들 사상 초유 남편 모교 교가합창

경팔회, 경부합동야유회서 ‘깜짝출연’ 박수갈채

“찬란한 옥과 같이 갈리고 갈려...” 남편들의 어울마당에 초청된 회년(稀年-일흔 살)을 눈앞에 둔 용마부인들이 사상 초유로 남편들 모교의 교가를 피코리 같은 목소리로 합창해 신선한 충격과 함께 감흥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5월26일 오후 경북 김천시 근교 황악산 자락의 직지사 절골. 경팔회(제8회동기회) 경부합동야유회에서 여흥 한마당이 무르익을 무렵 이 같은 깜짝쇼를 연출한 주인공은 서울아가씨합창단(?)이다. 이들은 이어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앵콜송으로 선사했고, 부산아가씨들도 “우리 실력 한 번 불레!” 하며 ‘사랑해 당신을’ 합창해 경부대항전을 방불케 했다. 이들의 신록보다 더 싱그러웠던 화음은 40여 년 부부금슬이 결정(結局)시킨 사랑의 찬가였다.

이에 남편들은 6.25전쟁 중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목이 터져라 부르고 불렀던 ‘낙동강’을 화답송으로 선사했다(서울아가씨들의 ‘교가제창’ 기획은 배우원 동문의 작품).



지난 5월26일 경북 김천시 근교 직지사 절골에서 열린 제8회 경부합동야유회를 즐긴 동문·가족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규환 재경회 회장과 이성호 부산회 부회장이 공동주재한 आय회는 앞서 이날 오후 12시30분경 부산의 40명과 서울의 33명(각각 부인 포함)이 직지사 주차장에서 서로 악수를 나누면서 우정을 재확인했다.

1년 만의 재회였지만, 평생 처음 만난 듯 “야, 이게 누구야”, “옛 모습 그대로구나...”, “졸업 후 처음 만나는 거 아이기?” 등등 반가움을 억누르지 못한 마음들이 석류알 터지듯 툭툭 터져 나왔다.

이날 आय회의 하이라이트는 <청춘을 찾습니다> 타이틀의 3막짜리 여흥한마당. 막이 열리자 재경 회장과 부산 부회장이 ‘만원사례’의 인사와 함께 등장인물·잔치의 시놉시스(개요)를 읊조린 후 퇴장하자 곧바로 혼자 참석한 ‘초라한 사내들’과 손을 꼭 잡은 채 미소짓는 부부들이 등장. 순서대로 ‘자기치리’를 독백(소개)한다. 박수와 웃음이 섞여 분위기가 뜨거워진다 (제1막).

잠시 무대가 회전되고 조명이 켜지자 진수성찬의 잔치상이 펼쳐진다. 축배에 이어 남녀 모두 체면불구 산채비빔밥에 넋을 뺏긴다. ‘욕망이란 이런 것이야’라는 현수막(?)이 펼쳐지자 이내 무대가 또 회전한다(제2막). 갑자기 밴드가 울려 퍼지더니 화려한 무대복으로 잔뜩 멋을 부린 MC(배주원)가 등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부적 재담으로 관객들의 배꼽을 빠지게 한다. 이어 차례로 남녀 가수들의 열창과 놀이패들의 묘기가 무대를 휘젓는다 (제3막).

특히 어울마당은 서울의 이창근 동문의 부인이 비법으로 담아 손수 빚어온 동동주와 맛깔스런 푸짐한 안주로 ‘술이 술을 권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날 잔치는 오후 3시께 막을 단았다.

한편 서울 경우 박재범=30만 원·지창수 김호석 추경석 김영학=각 20만 원·김진석 이유향 배주원 동문=각 10만 원, 부산 경우 김봉길 이춘기=각 10만 원·박동열=20만 원·장효표=양주 1병(불참)을 각각 협찬해 큰 도움이 되었다.

# 경총회 '가족 만남의 날' 성황

## 부인들에게 상품권·꽃다발 전달 격려

### 작은 음악회 분위기 살리고 '...술의 세계' 특강 좋은 반응

본부동창회 총무협의회(일명 경총회) 주관 '가족 만남의 날' 행사가 지난 6월 18일 오후 부산 동구 범일동 하모니웨딩타운에서 권오균 회장(21회) 주재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각 동기회 살림살이를 도맡아 동분서주하며 동창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총무들이 '한쪽 수레바퀴'가 되고 있는 부인들을 격려·위안하기 위해 마련한 것(사회:정인식 기획간사·28회)

권오균 회장은 안강태 본부 회장 격려금을 전달(황유명 본부 부총무·29회)받은 후 인사말을 통해 회원 부인들의 노고를 치하

했고 경총회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혀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그리고 오는 가을행사는 가족동반 문화탐방여행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후 참석자 모두에게 신간 서적을 나눠주었으며, 특히 부인들에게 별도로 상품권과 꽃다발을 선사했다.

에년의 야외여행사 대신 치러진 이날 모임은 카테일 파티~작은 음악회~특강~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초청강사로 참석한 이정식 동문(22회)은 '업그레이드 된 술의 세계' 제하의 특강을 통해 현재 지구촌에서 이용되고 있는 술의 종류와 역사 등을 소개, 총무들로부터 '동기회 행사준비 때마다 요긴하게 응용할 수 있는 정보'라는 좋은 반응을 받았다.



사상 초유의 가족동반 경부합동(6월4-5일)을 가진 제41회 동문·가족들의 다양한 모습들

# 시상 첫 경부합동 '사랑의 운동회'

## 제41회 60여 명 총주여행

지난 6월 4~5일 제41회동기회(일명 사일회)는 창립 후 처음으로 총부 총주시 근교 총주호리조트에서 경부 가족동반 '사랑의 운동회'를 개최했다. 백창봉·홍종철 부산·서울 회장이 공동주재한 이번 행사에는 동문·가족 6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 첫날인 4일은 자녀들의 물설매타기 등 놀이에 이어 전야제가 열려 환성·폭소·박수갈채 속에서 노래와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뒷날 5일은 족구시합 등에 이어 총주호 일주 유람을 한 후 귀가길에 올랐다.

이번 행사를 위해 백창봉 본부

동기회장(50만원)·류지섭 고문(30만원)·유수호 감사(30만원)·김달희 동문(10만원) 등이 특찬금을 쾌척했다.

## 제15회 동기회관운영위 개최

제15회는 지난 5월17일 오후 6시 부산 중구 부평동 골든 오피스텔 6층 동기회관에서 올해 첫 동기회관운영위원회를 개최, 하반기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정창환 운영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운영위원회 측에서 회장과 김학현 등 위원 8명, 동기회 집행부 측에서 김경일 회장과 김창구·최원수 총무, 업저버로 신홍규 동문 포함 5명 등 모두 17명이 참석했다.

# '피보다 진한 우정'이 투병 친구 '재기의 등불'로

## 제31회 용마들, 당뇨로 한쪽 다리 잃은 동기생 살리려 치료비 모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친구를 살리자!"

제31회 홈페이지에 최근 이같은 호소가 회장단과 허일현 동문 등의 명의로 뜨자 삼시간에 "나도 치료비를 보태겠다"며 성금을 쾌척하는 '피보다 진한 동기애'가 넘쳤다.

아름답고 희망 가득한 삶을 되찾기 위해 '절망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인공은 이상열 동문.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촉망받고 있던 그는

어느날 당뇨병이 악화돼 이젠 한쪽 다리를 잃은 채 투병 중이다.

그러나 병실(봉생병원-부산 동구 좌천동)은 동기생들을 비

## 회장단 등 앞장서 700만 원 모아 전달

롯해 선·후배 동문, 옛 직장의 동료·상사, 친척·친지 등의 쾌유를 비는 문명인들로 '정겨운 소란'을 겪고 있다. 이번에 동기생들이 짧은 기

간 중 1차로 쾌척한 치료비 지원 성금 규모는 자그만치 700여만 원. 이는 회장단과 특히 허일현 동문(국민은행 부산지점 차장) 등이 발벗고 나서서 모금한 결과이다.

이 동문은 지난 6월 중순 동기회 회장단으로부터 성금을 받고 "남 회장을 비롯한 동기생들과 주위의 여러분들이 배풀어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으며, 반드시 재기하여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가족동반 산상운동회 열광

## 제31회, 어린이대공원~남문 산행·금정산장 단합회

### 족구시합 우승 북부회 쟁취 최다참가상 이상식 가족(5명)

지난 5월29일 제31회동기회 가족동반 산행대회 겸 운동회가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정산에서 열려 신바람을 일으켰다.

남철우 회장이 총감독을 맡은 이날 행사는 '오전 산행대회'와 '오후 족구대회·노래자랑'으로 펼쳐졌다.

이날 오전 10시 어린이대공원 앞에 집결한 일행은 남 회장의 간결한 환영사에 이어 손영태 고문이 협찬한 얼음찜질용 스킨을 목에 두르고 산행에 나섰다. 코스는 수원지 윗길~산림욕장~만남의 광장~구민의 숲~만덕고개~남문~금정산장(오후 운동회 행사장).

김성규 동문이 산행대장을 맡아 선두에 나섰고 후미는 정정남 수석부회장과 안중수 직전총무가 맡아 대열을 다스렸다. 산행 중 맘을 식힐 겸 사명대사 기념

탐 앞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아마들은 갈딱고개를 지나 케이불카 종점쪽으로 프로들은 먹걸이촌~남문 쪽으로 길을 잡았다.



제31회 동문·가족들이 지난 5월 29일 부산 금정산 산행 후 남문 아래 있는 금정산장에서 열린 단합회에서 정담을 나누고 있다.

오후 1시30분께 일행은 낙오자 한 명 없이 금정산장에서 고단한 발품을 멈췄고, 남 회장의 격려사가 끝나기 무섭게 남녀노소 '체면몰수' 속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시작했다. 삼시간에 오리 17마리와 닭백숙 13마리, 묵 20여 대접이 온 데 간 데 없어졌다. 식사 후에는 운동회(족구대회)

와 노래자랑이 벌어졌다. 족구시합은 남부회(회장 오민일·1승1패)·북부회(회장 홍성수·2전2승)·서부회(회장 정정남·2전2패) 등이 가량을 겨뤘는데, 북부회가 남부회를 연장전에서 격파, 우승을 차지했다. 북부회는 우승상금과 내기 상금 12만원 등을

모두 동기회발전기금으로 쾌척해 다시 한 번 박수를 받았다.

홍성수 동문의 사회(동기회 행사 단골 MC)로 진행된 노래자랑에서 이근호부상은 박경수 동문 부부, 가창상은 조현우 동문 부부, 최다가족참가상은 이상식 동문 가족(부인·자녀 3명) 각각 받았다.

# 대구-경북 용마가족 관동팔경 관광단합회

만나고 또 만나서 화합의 햇살을 더욱 밝히자!

지난 6월 18~19일. 아름다운 관동팔경의 숨결이 곳곳에서 숨쉬고 있는 경북 울진을 무대로 펼쳐진 대구-경북지역동창회 아우회는 뜨거운 우정이 분출된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허경리 회장(16회·우성산업 회장)이 주재한 이번 행사에서 역대 동문·가족 30여명은 별미 시식과 굿판한마당, 포구의 어로 풍경과 특산물 견학, 명승지 관광 등으로 친교와 견문을 넓혔다.

첫째날인 18일 오후 일행은 이곳 후포면 근교 삼성산업(회장 허규판·20회) 연수

원에 집을 풀고 곧바로 생선회 등 갖가지 요리로 치러진 저녁식사를 즐겼으며, 이어 구내 노래방(자체 운영)에서 단합회를 열었다.

둘째날인 19일에는 허규판 동문이 직접 차를 몰고 안내하는 대로 후포항에 들러 어부들의 오징어 잡는 모습과 갖가지 해산물 판매장 등을 둘러보고, 월송정~성류동굴~망양정~솟대바위를 관광한 후 백암온천에서 피로를 풀었다.



로코코웨딩

부산호텔직영

## 광복동 로코코 웨딩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당신의 모습을 그려 드립니다.'

- 고품격 토탈웨딩 전문
- 드레스, 연주복, 파티복 맞춤·대여
- 오랜 전통과 축적된 노하우
- 직영 스튜디오 운영 (웨딩·가족·베이비)
- 특급호텔 (교회·성당·회관) 우대

※하절기 특별 기획 및 동문·동문 가족 우대

www.rococobusan.co.kr

남봉조 김진영(29회)



로코코웨딩: 부산시 중구 광복동 1가 52-1  
Tel. 051-244-5142 · 016-651-1671

**한이현 (16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이현 동문(16회·사진)은 지난 6월20일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행정고시(7회)에 합격한 한 동문은 재정경제부 예산실장·차관을 거쳐 김영삼(3회·본부 고문) 대통령에 이끄는 문민정부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돼 금융실명제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창출, 지휘했다. 이후 국회의원(부산 강서·북구을)에 당선돼 정계에 진출, 경제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십이분 발휘했다.

**노상현 (16회)**  
가곡 작곡 발표회 열어



외과의사인 노상현 동문(16회·사진)은 지난 6월 24일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40여년에 걸친 음악에의 열정을 '노상현 가곡 작곡 발표회-초혼(招魂)'으로 결정(結晶)시켰다.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노 동문은 이날 가곡 작곡 발표회를 통해 김소월 시 '진달래꽃' 등을 직접 노래(바리톤)했고, 초 중 고 동기동창인 정광 동문(전 영남대 교수·테너) 등이 우정출연해 발표회를 빛내주었다.

**화합 충전... 묘기 백출... 폭소 만발**  
**울산·마-창회 체육대회 열광**

울산과 마산-창원지역 용마가족들의 빅 이벤트인 체육대회가 각각 친교·협동·화합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려 신록의 계절을 한껏 푸르게 했다.

**울산지역동창회**  
축구·발야구 등 용호상박전 노래자랑 등 가족소락회도



울산지역동창회의 용마가족 체육대회 기념식 (사진 위)과 마산-창원지역동창회 가족사랑 체육대회의 동문·가족 혼성 줄넘기 경기 (사진 아래).

울산지역동창회는 지난 5월 29일 울산동중학교에서 가족오락회를 겸한 체육대회를 개최, 레포츠문화 확산의 기치를 드높였다. 박홍조 회장(22회·본부 부회장·삼우교통 대표이사)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지역회 고문단·회장단을 비롯한 동문-가족 150여 명이 훌-짱수기로 나눠 치열한 응원전 속에 용호상박전을 펼쳤다. 특히 본부동창회 안강태 회장(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을 위시해 김병수 국장 겸 총무부장(22회), 박호문 재경 사무국장(15회), 이희영 부산여고 울산지역동창회장, 오덕춘 부산고 울산지역동창회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10여 명이 내빈으로 참석해 격려했다.

박홍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행사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역량결집을 과시하리라 믿는다”며 “가을에는 가족동반 야유회를 열어 끈끈한 정을 지속시키겠다”고 말했다.

안강태 본부 회장은 격려사에서 “일사불란한 결집력을 발휘하여 우정과 화합을 확산시키는 본대회가 동창회 발전의 촉진제로 승화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기택 사무국장(28회)의 총감

독으로 진행된 행사는 오전에 동문대항 축구경기에 이어 벌어진 가족대항 발야구·줄다리기·홀라후프달리기(이상 실내체육관) 등을, 오후에는 남녀 혼성팀 대항 피구대회와 가족 동참 릴레이가 폭소 속에 용호상박전을 폈다. 이색 3중경기·노래자랑·행운상 추첨 등으로 연출된 가족오락회는 박진감·재치·재미를 동시에 선사했다.

**마산-창원지역동창회**

**홀수-짱수기 공동우승**  
**최다참가상 제3회 차지**

마산-창원지역동창회는 지난 5월 22일 경남 마산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제27차 가족사랑 체육대회를 개최, 축구 등 6개

**정준수 본부용마산악회장**  
하프마라톤대회 완주 쾌거



본부 용마산악회장인 정준수 동문(15회·부산대교수)은 지난 5월 22일 부산 다대포에서 열린 부산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 무더운 날씨에도 21.0975km 코스를 2시간44분 만에 완주해 노익장을 과시했다.

종목으로 격전을 벌인 훌-짱수기가 사이좋게 공동우승을 했다. 이번 대회 최다참가상은 제33회동기회가 차지했다. MVP는 최민석(21회)·우수선수상은 유성렬(32회)·감투상은 임영수 동문(30회)이, 비둘기상은 황중부 동문(17회) 부부·인공상은 광기영 동문(33회) 부부 등이 각각 받았다.

여환부 회장(21회·대주건설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지역회 고문단·자문단·회장단을 비롯한 역대 동문-가족 160여 명이 열광의 응원전을 펼치며 기량을 뽐냈다. 특히 내빈으로 본부동창회 안강태(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회장 및 황유명(29회) 부총무, 박호문(15회) 재경 사무국장 등 다수가 참석해 행사를 격려했다.

여환부 마-창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2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본 행사는 우리 역대 용마가족들의 자존심인 만큼 더욱 계승-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안강태 본부 회장은 격려사에서 “마산-창원지역동창회의 가족사랑체육대회는 다른 학교 동창회에서 매우 부러워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동창회 도약의 활력소가 되게끔 더욱 내실화시키자”고 말했다.

한편 김영삼(3회·본부 고문) 전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국회의원인 김정부(13회) 권영길(15회) 이근식(19회) 최철국 동문(25회)과 공민배(27회·한국지적공사 사장) 하영제 동문(27회·남해군수)은 축전을, 재경·진주·거제지역동창회와 KBC21회 등은 화환을 보내와 축하했다. 이날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마산MBC(TV)에서 30일 오후 7시 50분부터 10분간 방영됐다.

**박기욱 (23회)**  
열린우리당 부산 정책위원



부산시의회 2선의원인 박기욱 동문(23회·본부 부회장·열린우리당·사진)은 지난 6월28일 오후 열린 부산시당 제18차 상무위원회에서 정책위원장에 선임됐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박 동문은 열린우리당 부산 남구당원협의회장과 전국음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한 김 동문은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김석동 (25회)**  
재정경제부 차관보



김석동 동문(사진)은 최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재임 중 차관보로 승진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한 김 동문은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오성익 (25회)**  
열린우리당 수석자문위원



오성익 동문(사진)은 기획예산처 홍보관리관 재임 중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자문위원으로 발탁, 국회에 파견됐다.

고려대 통계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20회)에 합격한 오 동문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기획예산처 국장 등을 역임했다.

**유태준 (28회)**  
신용보증기금 총청본부장



유태준 동문(28회·사진)은 최근 신용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장으로 영진했다.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유 동문은 신보에 입사, 본부 보증심사팀장·부산중앙지점장·본부 신용보증부장 등을 역임했다.

**제26회세 동문 '영진 경사'**

관계(官界)에서 고위공직자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제26회 세 동문이 최근 나란히 영진해 본인과 동기회는 물론 동창사회에 경사를 안겨주었다. 주인공은 남인회 김석동 오성익 동문.

**남인회 (26회)**  
건설교통부 차관보



남인회 동문(사진)은 최근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재임 중 차관보로 발탁됐다.

남 동문은 서울대와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 기술고시(13회)에 합격한 후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교통부 도로국장 등을 역임했다.

**'글마을'에의 초대**

용마가족 여러분을 회보의 집필자로 모십니다. 시·수필·여행관광기·취미생활기·학창시절 추억담·시평·제안 등 빛이든 자료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시오.

<보낼 곳>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O/T 411호  
TEL : (051)245-7551~3 FAX : (051)245-7550

발명특허 제0202834호

(사용전) → (2년간 사용후)

**탈모예방·발모촉진**  
골드유모 유모화장품 영남지사장 송근호 (20회)

Tel. 051-315-0502 / 011-9236-3267

**탈모머안심**

# 본부 기별대항 용마등산대회 대신 동기회별 연간참가실적 시상제로

## 용마산악회 운영수정안 통과... 2년마다 정기총회

### 올해 정기산행 일정

- 20차 : 5월 8일 왕산~필봉산
- 21차 : 9월 11일 내연산에서
- 22차 : 11월 27일 영남알프스

본부 용마산악회 집행부가 2년마다 정기총회를 열어 임원 선출과 함께 구성된다. 특히 동창회장기 기별대항 용마등산대회는 올해부터 폐지하고 대신 매년 남회산행 시 각 동기회별 연간참가실적을 평가해 시상하는 행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용마산악회는 지난 3월13일 전북 순창 근교 강천산 산행대회

후 정준수 회장(15회) 주재로 각 동기회별 대표자회의를 개최,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정기총회 2년마다 개최 △동기회별 대표자회의는 정기총회 후 개최 △동창회장기 기별대항 용마등산대회는 올해부터 폐지한다 등의 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회의는 제20차 정기산행대회(올해 2차)는 오는 5월8일 왕산(923m)~필봉산(848m-경남산청군), 제21차는 오는 9월11일 내연산(710m-경북 포항시~영덕군), 제22차는 오는 11월 27일 영남알프스에서 각각 개최하는 계획안을 승인했다.



제29회동기회 산우 모임인 '29BASE CAMP' 회원 11명이 지리산 등반(3박4일) 마지막날인 6월6일 새벽 3시 천왕봉 등정에 앞서 비장한 모습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리산 천왕봉에 용마깃발 꽂아

## '29BASE CAMP' 11명 3박4일 등반

'29BASE CAMP'(제29회 산우 모임) 지리산 등반대회가 지난 6월4~6일 2박3일 일정으로 거림골~세석고원~춧대봉~연하봉~장터목~천왕봉~중봉~치발목 코스에서 펼쳐졌다.

이번 등반에는 부산에서 박기찬(산악회장) 김영훈(총무) 김정규(산행대장) 이충원 김연래 임광열 이공철 동문, 울산에서 김인철 동문, 서울에서 이범의 서봉교 정방호 동문 등 모두 11명의 베테랑(?)들이 참가했다.(권두진 동문은 4일 한밤중에 나타나 특찬금만 내고 업무관계로 귀가).

첫째날 4일. 거림의 민박집에 도착한 일행 중 9명은 ('젊은 오빠'로 불리는 중주조 이충원 임광열은 벽소령서 1박)은 집을 풀자마자 '술통잔치'를 벌였다.

둘째날 5일. 정오께 약간 정신을 차린 거림조는 성삼재를 출발, 벽소령조와 세석에서 재회해 라면과 주먹밥으로 속을 풀었고, 장터목에 도착해 염소·오리고기

를 안주로 소주파티를 벌였다. 셋째날 6일. 천왕봉 정상을 밟은 일행은 용마깃발을 꽂고 3대째 덕을 쌓아야만 할 수 있다'는 잠언한 일출을 맞이했다. 이어 하산을 재촉, 오후 3시에 산행종점인 윗새재 마을의 조개골산장에서 대정정을 마감했다.

# 가족과 함께 경주 남산 탁없이 종주

## 제28회 봄철 등산대회

제28회동기회 가족동반 봄철 등산대회가 경주 남산(494m)에서 강현안 동기회장과 이원철 산우회장 등 37명(부인 13명 포함)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산우회가 주관한 이날 산행은 울산에서 최성덕(지역회장) 권기택 이승열(김훈자) 동문도 참가해 반가움이 더했고, 목적산을 미리

## 경열회 7월 수업' 유급 속출

6월 골프대회 우승 조상진 김시열·이민섭 두차례경비 쾌적

7월20일께 장마가 물러선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경열회(제10회 재경회·회장 성 은) 친목회별 7월 수업'은 모두 9개 반 중 강북 화요회(회장 강재환·5일 오전 12시30분 평래옥)와 바둑모임 동수회(회장 김상태·23일 오전 11시 회장 사무실)만이 출석, '수(秀)를 받았을 뿐 나머지 사니조아·안산·분당·정우·일금·강남·경북회 등 7개 반은 유급(?)됐다.

한편 '6월수업' 일정은 △강남회(회장 김해룡·28일 서초 기와집순두부 18명·스폰서 김시열) △사니조아(회장 이계창·26일 수라산 2명·스폰서 회장·4일 관악산 7명-각자) △동수회(회장 김상태·25일 회장 사무실 7명) △일금회(회장 최장훈·24일 일산 마라도 7명-스폰서 김시열) △경북회(회장 이정배·23일 자유CC 14명-우승 조상진·메달리스트 김영덕·준우승 이승락·3위 이민섭·롱기스트 서진홍·니어리스트 변안수·행운상 김상태) △분당회(회장 정상수·18일 일식집 아사피 9명-스폰서 각자) △정우회(회장 최형백·16일 평촌공원 테니스코트) △안산회(회장 박철민·14일 산본 순두부마을 10명-스폰서 이민섭) △강북회(회장 강재환·7일 평래옥 24명·스폰서 이민섭)등 순이다.

<바로 잡습니다> 본보 제353호(2005년 5월19일) 4면 '재경경열회 5월 수업...' 제목의 기사 중 '회장 차동열'을 '회장 성 은'으로 바로잡습니다.



제35회 동문들이 계룡산국립공원 내 동학산장에서 비엔날레축제를 치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동학산장서 DHN35 비엔날레축제

## 제35회 전국에서 100여명 모여 젊음의끼 발산

DHN(독한남)35의 전국 대표 100여 명이 계룡산국립공원 내 동학산장을 완전 점령(?), 질풍노도의 대회를 펼쳤다.

지난 4월2일 저녁 D-Day. 동학산장은 부산 서울 대전 울산 마산 창원 진해 김해 진주 하동 광양 등에서 선발돼 온 제35회 초초맹장(?)들의 기고만장한 허풍들로 이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번 행사는 3일까지 1박하는 일정으로 열렸다.

### 조장부터 허풍대회(?) 벌여

김민수 본부동기회장은 2일 오후 6시 30분 행사장의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부 기념식을 주재, 인사말을 통해 "우리들 비엔날레축제는 '동기를 찾는 순례,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여행'으로 각자의 가슴마다 각인되는 뜻 깊은 행사'라며 "젊음을 담보하여 한 가닥 구김살도 남기지 말고 청춘을 구가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유공자 표창에서 홀커데이행사와 지역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명에게 순금배지를 수여했다. 손수범 총무의 행사일정 소개에 이어 벌어진 만찬은 동학산장이 마련한 갖가지 음식들이 다채롭고 맛깔스러웠으나 부산의 싱싱하고 달착지근한 생선회와 김해의 토종 흑돼지의 구수한 수육 등이 순식간에 섬멸(?)됐다.

### 부산 회·김해 흑돈수육 인기

어느 것 하나 별미가 아닐 수 없는 풍성한 안주를 탐닉하며 펼쳐진 국내의 향기 짙은 주류품평회는 끝내 열정의 심지에 불을 지피 지역 및 반별 대항 '삼바 페스티벌'로 확산시켰다.

'꽃을 든 남자'를 비롯한 갖가지 노래와 장기자랑, 저마다 서너 달 걸려

개발했다는 '배꼽 빠지게 하는' 춤들과 '요즘 기준으로 하면 성희롱성에 걸릴 수도 있는' 버전도 가세한 술한 별명들의 콘테스트, 요절복통하는 끝 글짜 이 어가기(예: 서울서 '계란하니 단번에 부산서 '란닝구로 위기모면), 일명 '다 모토리로 통하는 맥줏잔에 소주 넘치게 부어 단숨에 마시기 등 전략·전술이 잇달아 맹위를 떨쳤다. 그리고 '그 잘난 표정들로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어디든 이런 행사에는 꼭 있는 일이지 만, 한 방 '찰떡'하려는데 정운성(본부 동창회 부회장·전 동기회장) 동문을 선두로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이 불쑥불쑥 뛰어 드는 바람에 또 찍고 또 찍는 게 열 차례나 돼 얼을 받게 했다.

### '주류품평회'로 이수라장

일행은 행사 이름째인 3일 아침 늦잠 끝에 유성 온천에 들러 온천욕을 한 후 점심식사 자리에서 해단식을 치르고 헤어졌다.

이번 행사에서 집행부는 참석자 전원에게 동기회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대전지역회는 열쇠고리를 각각 선물했다. 그리고 여러 동문들이 다음과 같이 행운상용 상품들을 협찬했다.

- ▷권오을=던롭 트레이닝복 5점 ▷권중석=삼성전자 MP3 ▷변상돈=금강제화 상품권 ▷김민수=경옥고 ▷장병주=파라디소호텔 상품권 ▷부산사모골프회 회장(김기철)=골프공 6박스 ▷박창석=나이키 스포츠화 상품권 2장 ▷김홍근=트렉스타(등산화) 상품권 ▷박윤섭=피톤치드 스프레이 10점 ▷이재성=제주관광호텔 숙박권 ▷박희찬=침구류 1점 ·나누리아 스프레이 2점 ·금비누 1상자 ·게르마늄비누 1상자

# 제 14회 동기회 임원명단

## 고 문

문운용 손광웅 신길송 강주신 박병선 운영현 류종일 박효건 이길미 정시영 노수덕 한규환 이종민 김영대

## 회 장

김용호

## 부 회 장

김재도 김영식 김의웅 김이길 문성필 반미태 양정우 유정호

이광언 이승오 정현구 황원규

## 감 사

김철언 조영봉

## 이 사

공철성 구자신 김영우 김화옥 강호일 김형수 김홍관 박문남 박순일 박중철 박종문 박삼현 박춘제 박용화 박현목 신현호 염상주 윤용남 이동식 이명재 이수남 이훈일 정상진 정삼영

조규태 최경렬 최성웅 하광진 황준성

## 사무국장

박청홍

## <각 서클>

1·4회 회장 : 박병선  
경사회 회장 : 박용화  
경조회 회장 : 한규환  
등대회 회장 : 이재인  
등산회 회장 : 김재도

낙석회 회장 : 김병철  
의약회 회장 : 운영현  
보수회 회장 : 박춘제  
총무 : 조영봉  
K.B.C. 회장 : 박병선  
총무 : 강원수  
614 회장 : 김화옥

## <각 지역회>

재경동기회  
회장 : 김영치  
총무 : 이광우

## 거제지역동창회

고문 : 손광웅 윤용남 조규태

## 마창지역동창회

고문 : 김 관

## 울산지역동기회

회장 : 강호일  
총무 : 전부길

## <동기회 사무실>

부산시 중구 대창동1가 23-2  
동남빌딩 502호  
☎(051)462-6114





# 제19회 '회춘의 쇼쇼쇼' 대공연

##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축제에 250여 명 모여

**본부동창회장 공로패  
박성규 · 조경래 받아**

**사은의 밤 미리 베풀고  
모교에 격려금 300만원**

제19회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축제가 이기주·임장주 부산·재경 회장의 공동주재로 지난 5월 19일 사은의 밤과 21~22일 동문-가족 어울마당 등 2개 테마로 나눠 뜻 깊게 거행됐다.

이번 축제의 서막인 사은의 밤은 19일 오후 7시 부산롯데호텔 극장식 식당에서 열여덟 분의 은

이어 안강태(11회·대전조선 대표이사) 본부 회장을 비롯한 내빈 소개·유공 동문 표창·부산 회장 환영사·재경 회장 축사·본부 회장 격려사·만찬·여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기주 축제집행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모교방문 40주년 축제는 우리 동기회의 빛나는 전통과 위상을 웅변하는 것"이라며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결집하자"고 말했다.

앞서 안강태 본부 회장은 박성규 조경래 동문에게 공로패를, 배지호 김봉호 동문에게 순금기념배지를 각각 수여했다. 그리고



제19회 동문들이 졸업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축제를 맞아 모교를 방문, 추억 깃든 원형교사의 2-3층 난간에 뱅 둘러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를 모신 가운데 치러졌다.

이기주 축제집행위원장(동기회장)은 위원 전원과 서울·울산·마산-창원·대구·대전·인천·수원 등 지역회 회장 등 3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은사께 장수를 비는 뜻이 담긴 기념품을 증정하고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사은의 밤에 이어 21~22일 속행된 동문-가족 어울마당은 국내 외에서 250여 명이 참석, 새로운 추억을 연출했다.

어울마당 첫날인 21일 용마가족들은 이날 오후 3시 경남고에 집결, 교정을 둘러본 후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곧바로 해운대로 이동했다.

오후 6시30분 해운대 조선비치호텔 대연회실, 이기주 축제집행위원장이 주재한 어울마당 제1부 기념식이 막을 열었다(사회:강영범 동문). 기념식은 교가체창에

권명미 경남고 교장은 박동화 백용환 동문에게, 김철곤(16회) 경남중 교장은 황태원 이인석 동문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기주 축제집행위원장은 권명미 경남고 교장에게 200만원, 임장주 재경 회장은 김철곤 경남중 교장에게 100만 원을 각각 모교 발전 기금으로 전달했다.

오후 8시 허홍욱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회춘의 쇼쇼쇼'는 러닝타임 110분짜리 '아무도 못 말리는' 노래·장기자랑으로 기획됐다.

어울마당 마지막날인 22일 오전 8시, 해운대 원조복국집에서 아침식사를 한 일행은 세계적 관광 명소인 광안대교 등을 관광한 후 감포 횡촌까지 이동, 부산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달착지근한 생선회 위주의 오찬과 이별주로 해단의 정을 나눴다.



경남중의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빌려준 제13·14·25회 졸업앨범 (왼쪽부터)의 표지

# "졸업앨범 꼭 좀 빌려주세요" 경중, 호응도 낮아 다시 호소

### 제1~12·17·22·23·54·56·57·59회 대상

### "제13·14·25회 협조 대단히 감사합니다"

"졸업앨범 빌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제1회부터 제62회까지의 졸업앨범을 구축하고 있는 경남중(교장 김철곤·16회)은 본부동창회보(제353호)를 통해 "졸업앨범 좀 빌려주세요"라고 간청한 결과 제13·

14·25회가 이에 호응해줘 "대단히 감사합니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경남중은 아직도 제1~12·17·22·23·54·56·57·59회의 앨범을 구할 수 없어 "졸업앨범을 꼭 빌려주세요"라고 호소하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청하고 있다.

모교에서는 이 같은 졸업앨범을 빌려주면 홈페이지에 구축한 후 되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연락처 : (051) 256-0937 경남중 행정실



본부 용마산악회 제20차 산행대회(5월 8일)에 참가한 회원들이 경남산청군 근교 왕산을 등정하기 전 설명을 듣고 있다.

# 110명 왕산~필봉산 단숨에 등정

## 본부 용마산악회 제20차 산행대회 성황

본부 용마산악회 제20차 산행대회('05년 제2차 정기회)가 지난 5월8일 경남 산청군 왕산(923m)~필봉산(848m)에서 펼쳐졌다.

정준수 회장(15회)이 이끈 이날 산행에는 한동대(9회)·제병민(13회) 고문을 비롯해 110명(가족 22명 포함)이 참가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산행 들머리인 덕양전을 출발한 일행은 1시간50분 만인 오후 12시20분 왕산 정상에 올라 용마산악회기를 꽃았다.

일행은 이곳에서 1시간 동안

점심식사와 휴식을 취한 후 출발, 오후 2시30분 필봉산에 올라 두 번째로 용마회기를 꽃고 "모교 만세! 동창회 만세! 용마산악회 만세!"를 외쳤다. 하산길에 접어든 일행은 오후4시 향양리에 도착, 목욕과 저녁식사를 한 후 귀가길에 올랐다(19:00).

## 제32회 회장 김태홍 선임

제32회동기회는 지난 5월12일 부산진구 부전동 터존뷔페홀에서 '05정기총회를 열어 신임회장

## <龍馬24> 5호 발간 제24회 동기회 대변지

제24회동기회 대변지 <龍馬24> (발행인 최승국/편집인 김영철) 제5호가 다채로운 읽을거리와 각종 정보를 골자로 편집돼 최근 발간, 동문-가족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주고 있다. 이 회지는 타블로이드판 4쪽을 컬러로 꾸며지고 있다(사진은 표지).

제5호에는 1면 >4월 월례회 소식 >05 춘계 山友愛 호남탐방기(산우애·동기회 등산 모임 이름) 등을, 2면에는 >용마단상-젓은 낙엽과 야구/김도현 >동기회소식-24GOLF회·이사달(달리기 모임)·산타래(재경회 등산 모임)·이사들(바둑모임)·후라회(야구 모임)행사 등을 각각 실었다.



또 3면에는 >전문가 칼럼-음악으로 하는 노후생활 준비/오성환 >동기부인칼럼-시아머니를 생각하며/윤경자(정기호 동문 부인) >연회비납부 안내 및 납부자 명단, 4면에는 >동문탐방-부산대 상대 황구선 학장 >그 때를 아시나오? 격세지감/장민재 >영진·자녀 결혼 등과 부음 소식 >편집후기 등을 게재했다.



김태홍 동문(한림학원 원장·사진)을 선출했다. 김대식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 동문이 참석 결산·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 개선에서 감사에 이성호·재무에 정성수·총무에 박종우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김태홍 신임회장은 김대식 직전회장을 비롯한 전임 임원들에게 순금배지를 전달했다.

fnnews.com

구독신청 2003-0112



# 글로벌 경제시대의 새로운 시각 First-Class 경제신문



경남고 21회 全在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뉴스빌딩